

고해상도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을 개발해 수치예측능력을 더 향상시키겠습니다!

<주요 보도내용(서울신문, “비 예보, 4년 전보다 뒷걸음질(’24.9.23.)”>

- △ ‘강수유무정확도’ 지수는 2020년 91.4%에서 올 8월 기준 89.1%로 하락
- △ ‘한국형수치예보모델’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예보정확도 하락의 또 다른 이유

전세계 수치예보모델 개발 분야에 있어 한국은 후발주자로서 영국, 미국 등과 같은 기상선진국에 비해 30년 이상 늦게 시작하였지만, 한국형수치예보모델(KIM) 개발을 완료하여 현업 운영 중에 있습니다. 현재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세계 1~2위인 유럽연합모델(ECMWF), 영국기상청모델(UM)과의 격차를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. 향후 우리나라 부근의 기상을 더욱 촘촘하게 예측할 수 있는 고해상도 차세대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을 2026년까지 개발함으로써 수치예측성능 향상을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.

다만, 기후위기로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위험기상(강수·폭염 등)이 증가하고 있어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. 그 결과 보도된 바와 같이 올해 1~8월 평균 예보정확도는 89.1%로 다소 낮은 편입니다. 통상 여름철이 지난 이후 연평균 예보정확도가 상승하는 만큼, 올해 연평균 예보정확도는 90% 이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

기상청은 예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기여한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‘예보 3요소’인 기상관측, 수치모델, 예보관 역량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예보국	책임자	과 장	김성목 (02-2181-0492)
	예보정책과	담당자	서기관	김강하 (02-2181-0496)